

2017 년 12 월 31 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엡 4:13-16)

<도입>

영적 삶은 주님 성품을 닮는 삶이고, 인격적 관계의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을 위한 교회의 예배와 봉사 속으로의 참여 속에서 경계해야 할 것과 영적 삶의 중요한 배움의 현장인 목장 생활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1] 완벽(완전)주의를 경계하라.

완벽주의(perfectionism) = 삶의 관심 분야에서 완벽을 추구하나 참 인격과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방식. 완벽주의를 점검하는 증상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강박**’,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멀리**’, ‘그것 때문에 **불안 발생**’, 또는 ‘이렇게 되려고 강령과 금기를 추구하는 **올법적**(원칙주의, 올법주의)’인데, 결국 종의 멍에를 메게 됩니다(갈 5:1). 무엇보다 완벽주의의 최종 지점은 **분노**입니다.

그러나 완벽주의 속에서도 이런 증상들은 꽤 감출 수 있고, 성품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길(13 절)과는 완벽하게 다른 길이며,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하기 보다는 영적 바리새인, 또는 신경 과민증으로 만듭니다.

v.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완벽주의자를 만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체계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념체계란 양육 과정에서 살아남고자, 또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반드시 이렇게 되어 한다고 믿게 된 생존방식을 말합니다. 예: 유교의 예의/제사; 반듯하고 정결해야 함; 수준급에 이르러야 함; 언행/습관의 기준, 이념적, 사상적 기준 등...

이런 신념 체계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고 강박과 못마땅함 속에서 내적 힘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의 맺는 관계는 딱딱해질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리고 낮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거나, 협력 때는 까다로워서 피해가고 싶거나, 잦은 충돌을 빚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주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남모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완벽주의에 사용할 힘을 빼야 합니다. 위의 소모적 내적 요소들이 예수님께는 없었지요. 그리고 나의 내적 힘은 화목/나눔을 위해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힘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시 84:5).

[2] 교회의 참 모습

교회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부요함(유업)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하나됨입니다(엡 1-2 장). 에베소서에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속성인지를 말하고 하나됨을 지키라고(4:3) 권면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15 절).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됨(화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벽주의적 본성은 크게 작게 하나됨을 쉽게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훈련하는 교회의 소중한 한 도구를 언급한다면,

<목장모임>

목장 안에서 나는 하나됨의 진리 앞에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애써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목장개편은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깊은 하나됨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개편하는 가운데 여러 인간적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따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 충족보다도 목장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와 필요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만족되어도 하나됨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장에 혹시 비호감 인물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선하고 긍정적인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15 절). 목장은 하나됨 안에서 성숙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목장 안에서의 축복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나와 맞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은가요?)과도 오래 사귀면서 그를 받아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새로 발견하고 고치면서 서로가 견게 되는 성숙과 성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목장이 하나 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말과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하나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과 행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을 끌어 올 수 있게 합니다.

<맺음>

내년도 표어, 시 84:5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목장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터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힘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힘을 얻음으로 더욱 얻을 삶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하나됨에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 질문을 모임에서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자유롭게 나누고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 보십시오

1. 완벽주의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야 행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나름의 신념에서 나온 방식과 행위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나요? 이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2. 예수님은 완벽주의자입니까? 아니라면 어떤 삶을 사셨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내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3. 목장 생활을 위해 개인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대가 추구하는 편리주의(더 편해야 행복하다...), 공리주의(합리적 원칙 아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취하려는 주의) 등으로 목장이 운영된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목장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보십시오.
4. 성경의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은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려면 하나됨을 배우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목장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요?

<송구영신예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엡 4:13-16)

내년에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원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안 이뤄진다 해도 뜻밖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Paul Tillich 는 하나님은 나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기 위해 내년에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행하든지 삼각형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개의 꼭지점은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세 기둥입니다.

[1] 예수님 알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났다면 one of gods 를 만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엡 2:18 “이는 그(예수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년에도 말씀의 여러 통로, 매일성경, 설교, 목장 예배와 나눔, 성서학교 등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충실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노트를 마련해서 자신이 알아가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보십시오.

96 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액기스 요약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 교회 알기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지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위에서 본 엡 2:18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받아줄 때 **함께** 성숙의 길을 갑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을 알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물을 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각 개인에게 위임하시고 직접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 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예수님이 교회에 위임하심으로 느끼실 모험적 요소를 압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일단 서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걷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새 아장아장 걸읍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는 누구도 걸음을 배울 수 없죠.

CS Lewis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당신이 나서서 하지 않는 듯하다. 당신이 눈 한 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며 그르치더라도,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다”

교회의 위대성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험 안에서 비록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도록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에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시고, 자녀들의 선택의 자유까지 인정하심을 알고 함께 교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가슴 뛰시는 지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나” 알기

나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보라면,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을 하고 싶은 것 몇 개 쓰면 그것이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존재(내적 영혼의 세계)에 대한 통찰을 깊이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내년에는 성경 안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깨어남이 여러 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의 편지 안에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조 때부터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묵상 주제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시는 아들, 딸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의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말씀 안에서 늘 나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 살면 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맺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서 살기가 불가능해진 사람들입니다. 부디 2018 년도에는 내 자신이 더 새로워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뜻과 의지로는 못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집니다. 이 은혜 중에서도 핵심인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